

< 비스듬히 obliquely >

김시연

아티스트 토크 녹취록

2023.6.10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팟캐스트 링크

<https://podbbang.page.link/eoaGMaFE9cEeHtjm9>

김인선 : 2023 년 5 월 31 일부터 6 월 25 일까지 열리는 개인전 <비스듬히>의 김시연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연 : 안녕하세요. 김시연입니다.

김인선 : 저희 공간과 정말 오랜만에 개인전을 또 한번 하게 됐는데요. 윌링앤딜링에서는 2013 년도에 개인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10 년 만에 전시입니다. 그 사이에 2016 년에 EM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구요. 중간중간에 기획전이나 그룹전에도 참여하셨었지만 7 년 만에 신작으로 개인전을 하게 됐네요. 오랜만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김시연 작가는 이화여대 조소과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chool of Visual Arts)에서 파인아트(fine art) 전공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새로운 작업을 선보이는 준비 기간이 길었고, 그 사이에 미술계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객층도 새롭게 생기고 컬렉터 층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어요. 그동안에 많은 변화를 겪은 이 미술계 안에서 작가님의 작업과 김시연이라는 존재를 한 번 더 상기시킨 후에 이번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미국 유학 시절에 지금의 작업의 맥락을 이어갈 수 있는 시초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학부와 대학원 조소과를 다녔었던 시기와 달랐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생성됐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김시연 : 저는 전통적인 조각을 배우는 시기에 조소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할 당시 다루던 재료가 약간 부드러운 성향이 있었기는 했지만 캐스팅 작업이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각 공부를 했었고, 본격적으로 부드러운 재료와 새로운 재료들을 탐색하기 시작한 시기는 유학을 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1997 년도에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99 년도에 유학을 떠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전통적인 돌이나 나무 등의 딱딱한 재료가 조각적인 가치에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때라 저도 그런 선상에서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SVA(School of Visual Arts)에서 첫 수업은 자신이 이때까지 해온 작품을 보여주고 그 작품에 대해서 크리틱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하는데 담당 선생님이 재키 윈저(Jackie Winsor)라는 신 미니멀리즘의 유명한 작가분이셨어요. 우리가 마녀라고 불렀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제 작품을 보시면서 마녀같이 깔깔깔 웃으시면서... 정말 너무나도 큰 소리로 웃더군요. 몸집도 크시고 여장군 같은 분이 큰 소리로 깔깔깔 웃으시면서 네 작업은 1960년대 작업 같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들은 그 말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그때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시작되었고, 자기가 살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주하게 되는 유학 시절에 꼭 한 번씩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 같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일까', '나의 존재는 무엇일까' 등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까지의 작업 주제는 아이덴티티였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때였고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짧은 글로 썼어요. 보통 동화나 시적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쓴 이야기는 라푼젤 동화를 차용했어요. 동화에서는 왕자님이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와서 구해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목을 잘라서 탑 위에 걸쳐 놓고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가는 이야기를 썼어요. 이야기를 그대로 서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했어요. 그 작품은 종이에 드로잉한 후 이를 입체적인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처럼 유학 시절의 작업은 조금 더 일상적인 재료에 대한 탐구와 동시에 다양한 매체가 저의 작업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습득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설치작업이나, 소리를 녹음하는 것도 있었고 영상 작업도 있었고 실제로 그 드로잉 자체를 오브젝트처럼 입체물로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요. 일상적인 재료들을 가져다가 설치하는 작업도 하면서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는 과정이었고, 지금 제가 하는 그 모든 작업들에 기반이 되었던 작업 과정이나 결과물을 내는데 어떤 매체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기반이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김인선 : 지금 생각했는데 2013년도의 윌링앤딜링에서의 개인전이 라푼젤 동화 이야기를 주제로 했었는데 그게 유학시절에 형성됐었던 거네요?

김시연 : 네. 그 시기에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인선 : 그때도 종이 작업들을 벽에 붙였던 기억이 나요.

김시연 : 걸려 있는 인물들의 목이 없었죠.

김인선 : 맞아요. 1990년대 후반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됐던 시기이기도 했었죠. 그때 항상 대두가 됐었던 주제는 아이덴티티였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 과정을 다 밟으셨군요. 그리고 그런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드로잉, 다양한 재료, 우리가 그 시절 대학 때 하지 못했고 다루지 않았던 재료나 형식들이 조각이라는 영역 안에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게 연구했겠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김시연 : 가족이 생겼죠.

김인선 : 아기를 낳고, 가정이라는 것을 꾸려가면서 얼마전에 아이를 대학도 보내고요. 그 안에서 형성되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도 얘기해주세요.

김시연 : 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라고 물으시면 저는 제 생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발견되는 일종의 소소한 감정들에 주목해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나타내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작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유학시절에 만난 비평가인 제리 샬츠(Jerry Saltz)라는 분이예요. 그분께서 제 오픈스튜디오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게 너의 리얼리티이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의 작품이 좋은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너의 리얼리티가 돼야 한다는 얘기가 항상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제 생활 주변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벌어지는 일들과 현상들을 분석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작업을 연장선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인선 : 한국에 돌아온 김시연 작가는 그 당시에 소금으로 유명했는데, 집에 소금으로 기둥을 만들어서 채우고 방바닥에 패턴을 만들어서 발 디딜 틈 없이 뿌려놓고 사진으로 결과물까지 연장시키는 작업을 보여주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었죠. 그 소금이라는 것이 작가님한테 감정적으로 작동했던 재료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다른 재료인 소금에 대해 듣고 싶네요.

김시연 : 이런저런 다양한 재료를 접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캐스팅에 사용하는 레진, 실리콘과 같은 재료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재료들을 사용할 수 없었죠. 조각을 공부한 사람들의 습성상 뭔가 입체를 만들어야 하는 강박 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이면 좀 더 완성된 느낌이 든다는 묘한 강박감이 있어서 재료 탐구를 많이 했어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재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족이 생기고,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지점 안에 들어와서 제 관심사가 저의 생활이라는 것에 가까이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일상적으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던 시기인데, 임신을 하게 돼서 천연적인 재료, 몸에 해롭지 않은 재료를 사용했어야 했어요.

김인선 : 전에 레진 캐스팅을 직접 장착 했었죠?

김시연 : 이야기속의 목이 잘린 소녀의 머리를 제작하여 일종의 의식의 도구로서 장착하고, 자아를 찾는 제례 행위와 같은 연기를 녹화해서 영상 작업을 만들었어요. 이후 소금 작업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작업을 시작할 때 항상 일상에서 느꼈던 감정들로 짧은 글을 써요. 소금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재료로서 직접적으로 진짜 소금을 썼죠. 그 소금 작업을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소외'라고 생각해요.

김인선 : 아기도 생겼는데, 왜 소외감을 느끼셨어요?

김시연 : 소외감은 저의 내면의 바닥에 존재하는 감정인데, 삶에서 일반화 했던 가치가 흔들릴 때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고, 그곳은 굉장히 따뜻한 것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의 생애 주기가 가면서 다른 경험들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면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되면 그때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평범하게 생각해 왔던 것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의 그 체험이 제 작업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집이 굉장히 안락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묘한 감정들을 소금을 통해서 표현된 것 같아요. 소금 이야기는 집에 소금 알갱이가 떠다니는데 집이 행복하고 긍정적인 느낌이 들면 소금 알갱이가 떠다니다가, 여기서 슬픔은, 집에 어떤 슬픔- 정말 우는 슬픔일 수도 있고요, 마음 깊이 언제든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슬픔이 올라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를 알 수 없는 것을 대변하는 소금 알갱이들이 소금 기둥으로 집안을 가득 채워가면서 그 슬픔을 견딘다는 이야기 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금 기둥을 하나씩 집에 세웠죠. 또한, 아이를 가져, 밖으로 외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생활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업을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설치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규모 설치도 아니었고요. 그냥 집 안에 있는 곳곳에 소금기둥을 하나씩 만들어 설치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진 소금 기둥은 견고하게 어떤 경화제나 굳힐 수 있는 어떤 화학적인 물질을 넣은 것이 아니라 적당량의 수분을 주고 건조해서 만들어진 기둥이에요. 그래서 약한 충격에도 바로 부스러지기 때문에 옮길 수도 없고 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김인선 : 이 사진은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꼭 이어오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이번 전시 얘기하면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소금으로 다시 돌아가면 새로운 환경이 생겼고 새로운 가족도 생긴 와중에도 슬펐던 것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왔는데 뭔가 다른 자아와 공생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본인이 온전하게 하고자 했던 것을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작동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삶에서 생성되는 종류의 재료 그리고 만들기를 진행한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소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비슷한 맥락의 재료들을 사용해 왔잖아요. 재미있는 게 제가 이 토크를 하기 전에 잠깐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아이의 성장과도 긴밀한 느낌이 들어서 흥미로웠어요. 그 재료들의 변화 이런 걸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김시연 : 그래서 저의 작업이 사적인 서사를 기반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시기 수월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했던 작업이 비누를 사용한 작업이에요. 그 비누는 아이보리 비누예요.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아이를 씻길 때 아이보리 비누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이보리 비누는 동시에 제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오래된 기억에 있는 비누이기도 하고요. 목욕을 할 때 저희 아이가 그 비누가 완전히 다 닳을 때까지 목욕탕 안에서 뽀족하게 비누를 갈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비누가 정말 가시 같구나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가족과 저의 생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행복하고 좋았던 했지만 항상 저의 정체성 '나는 누구고 여기서 뭘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이고..' 그런 생각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전제 안에서 작업이 시작,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누를 가져다가 가시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하나하나 매우 얇게 깎고요. 그 다음에는 물로 비벼가면서 하나씩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조금씩 채워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온 집을 채우면서 설치를 했었죠. 근데 집이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그 당시에 중요했던 요소였던 것이 제가 실제로 24 시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고 아이를 키우고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작업실이

별로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의 생활이 곧 작업이 되고 작업이 제 생활이 될 수 있었던거죠. 항상 저는 그 고민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게 내가 뭔가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작업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라는 제목의 비누 작업을 한 단어로 말하면 '불안'인 것 같아요. 불안감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면에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당시 여전히 집이라는 환경 안에서 제가 느낀 어떤 감정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김인선 : 세탁 세제도 쓰셨었잖아요. 향이 강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시연 : 맞아요. 향이 굉장히 강한 세탁 세제를 썼는데, 그 당시 그 세탁 세제도 락스 계열의 세탁 세제를 써서 오랜 시간과 노력의 흔적을 목격할 수 있는 장식적인 패턴으로 제시하여 일종에 들어오지 말라는 표식을 했었죠. 후각적으로 더 강하게 금지를 느낄 수 있는 세탁 세제를 선택했어요. 그 작업도 집에서 설치하고 사진으로 기록물을 남겼고, 갤러리 공간에서 전시될 때는 미니멀적인 설치가 됐었죠.

김인선 : 프라이빗한 본인의 집 안에서 설치가 돼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옮기고, 다시 사진이 갤러리 전시로 전환이 되면 집 안에서 설치하였었던 것이 삭제되고 사진 이미지만 남겨지는 게 이 작업 과정의 맥락에서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한편 퍼블릭한 공간의 한 편에서 샘플처럼 설치를 종종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일련의 전체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프라이빗한 감성과 퍼블릭하고 오픈된 공간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김시연 : 집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는 건 저의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저의 주제와 맞는 부분이어서 사진결과물로 보여줬고, 미술관이나 갤러리처럼 전시 공간에서 보여줄 때는 한 가지를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재료가 누구나 슈퍼마켓을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지점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다른 가치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상의 사물을 작품으로써 보여주고 좀 더 소중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제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사진이라는 기록 결과물로는 충족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의 전시를 위한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는 재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작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시공간에서 실제로 집에 있는 가구나 집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모습을 은유할 수 있는 어떤 설치나 장치를 활용해서 제시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전시하지 않고 미니멀적인 형태에 재료가 부각되게 보여줄 수 있는 설치방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공장에서 나온 재료가 예술품으로써 의미 있는 재료로 인지 하게하고 작품으로서 인식하게 하는,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치가 미술관에 갔을 때는 좀 더 중요하고 작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각적인 행위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표현법으로서 모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인선 :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순서와 흐름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에서 설치한 가장 사적인 어떤 행위 자체가 사진으로 기록이 됐고 그것이 전시장으로 나왔을 때 그 사진에서 기록된

것이 다시 공간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이렇게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노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여기서 또 다른 방식으로 전시라는 것을 통할 때는 예술적 행위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집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전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전시에서 지우개 똥이 사용되었죠. 2012년 두산 갤러리에서 개인전 <노르스름한>할 때 뉴욕에 레지던시도 가셨었고 뉴욕에서의 <Thread>전시도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지우개를 사용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이 재료를 사용한 이유가 있었나요.

김시연 : 그때의 지우개 작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상실감'이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지인을 잃는 경험도 있었고 정말로 슬픈 시기였어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여겼던 것이 사라졌다는 거에 대한 상실감에 깊은 애도 같은 슬픔을 반영한 것인데요. 또 한편, 지우개 작업은 저희 아이 생활과 연관이 돼요. 아이가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땐데 또박또박 글을 쓰고 싶은데 잘 안 써지니까, 미술용 지우개로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지우개 똥이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우개 똥이 저 아이가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며 다시 잘해보고자 하는 시간, 노력, 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함축된 부산물로서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지우개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어요. 지우개는 아이가 썼던 화방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미술용 지우개고요. 지우개 작업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데요. 하나는 종이에다가 색깔을 칠하고 그 색깔을 지워가면서 나오는 가루를 수집하는 작업이었고, 그 지우개는 밀도가 높은 단단한 지우개로 만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지우개 똥을 계속 이어가면서 실로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지우개는 상실, 즉 덧없이 버려진 것들이 그냥 버려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아 있는 것, 노력한 시간과 흔적이 실제로 남아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서 의미를 지닌 재료로 사용했어요.

김인선 : 그러네요. 상당히 이중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잃는 것과 노력을 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 사이에서 지우개 똥이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전시공간에 오신 분들이 '저게 안 끊어져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길게 안 끊고 이어갔지?'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가 없어졌는데, 지우개 질이라는 행위도 글자를 지우거나 색을 지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미지를 없애는 과정 안에서 발생한 부산물들이 또 생명력을 이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사진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지금 전시장에 설치돼 있는 이 설치하고 똑같은 사진은 아니에요. 즉석에서 가지고 온 재료들로 그 공간 상황에 맞춰서 설치를 일주일 정도 출퇴근하면서 꼼짝 않고 설치를 하셨습니다.

이 사진 작업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전에 소금으로 만들거나 했을 때도 사진 작업들이 있었고 그 사진들은 규모도 있고, 흑백들도 있었죠. 사진 작품으로서 더 와 닿았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니까 규모가 작고 좀 다른 방식으로 사진들을 들여다보게 하는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다루는 초반에는 사진 작가를 고용하셨었고요.

김시연 : 네. 전문적인 사진 작가님의 도움을 받았었어요.

김인선 : 이후 뉴욕의 레지던시 시절에 전문적으로 사진 공부를 하고 이제는 직접 찍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진이 어떤 매개체로서 또는 작가님한테 어떤 의미로서 다뤄지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시연 : 처음에 사진 작업이 결과물로 전문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소금 작업 때부터 이고요. 그때는 사실 작품으로서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채 찍기 시작했구요. 이것들이 영속적이지 않은 재료니까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서 찍기 시작했고,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니깐 제가 생각한 저의 얘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잘 설명할 수 있는 기록적인 사진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배우고 나서 찍기 시작하면서는 조금 더 감정적인 사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기록적인 사진보다는 좀 더 독립적인 이미지 자체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현재의 사진 결과물들은 일종의 아이디어 스케치용 사진일 수도 있고요. 설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일종의 연구용 사진도 있고요. 저의 이야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사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저만의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 중에 나온 사진이어서 어떤 사진은 위태로움이라는 주제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인 것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진은 설치 작업의 제작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윌링앤딜링에서 보여지는 사진은 그런 것들의 파편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김인선 : 저 사진을 프린트한 종이가 두껍고 울퉁불퉁한 재질감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진을 보는 느낌이라기보다 어떤 일러스트를 보는 느낌도 강해요. 그래서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이미지들이 단편적인 내러티브를 가지는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완벽한 형식의 사진을 보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여기 벽을 칠하고 사진의 액자도 벽과 공간에 맞춰서 색깔을 구성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김시연 : 사진 결과물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작업을 쉬었던 기간동안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나 결과물로 제시되는 사진의 기술적인 발전이 크더라고요. 사진이라는 도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접하고, 표현할 수 있는 매체로서 이미 대중화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경향속에서 저의 사진 작업이 차별화가 되어야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예요. 일종의 드로잉과 사진의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지점에 있는 결과물이었으면 좋겠다고 고안하고 실험하면서 나온 작업들이라 앞으로 제가 보여드리게 될 작업도 전시한 사진 결과물의 선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선 : 지금 설치해놓은 형식이나 사진 작업에서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지만 이전의 소금이나 비누 같은 설치 작업과의 설치 형식 또는 이 설치가 얘기해 주는 개념은 항상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바리케이드 barricade> 작업으로도 사용하셨는데 그런 방어 기제 내지는 경계 이런 거를 어떤 의미로 설정을 하고 표현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김시연 :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애매모호한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스듬히 obliquely>라는

작업도 그렇고, 이중적인, 거의 경계선상에 서서 확실히 명명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애매모호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지점에 있는 그 무엇에 도달하고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무엇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제 작업은 항상 드로잉과 조각의 경계선에 있는 그 무엇, 설치와 사진의 경계선에 있는 그 무엇, '네가 설치 작가니, 사진 작가니'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냥 창작자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그리고 제 생활과 작업과 그런 것의 중간 지점에 있는 저의 현 환경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는 것 같아요. 방어 기제는 주로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너의 작업은 참 너 같구나라고 말하는 그 지점과 가까이 있는데요. 제가 작업을 하게 이끈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말로 전달을 잘 못해요.

김인선 : 지금 말을 똑 부러지게 잘하고 있는데요?

김시연 : 제 감정이나 솔직한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어서 소통을 잘 못해요. 언어 소통을 잘 못해서 이미지로 소통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종의 제가 허용하는 범위까지 들어와서 제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주제안으로 "가까이 들어오세요.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경계를 항상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환경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했지만 제가 허용하는 범위는 여기까지 임을 제한 하는 경계이며, 그 이후의 작품의 이면을 들여다보기는 관람객에게 맡겨진 부분이지요. 관람객에게 이 지점 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일종의 묘한 긴장감들이 있죠.

김인선 : 제가 김시연 작가님을 어려서부터 알던 터라 그 성격을 아는데요. 실제로 선이 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친한 친구들끼리는 보면 첫인상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워낙 친하지 않으면 경계가 너무나 확실해서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경계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본인의 영역에서는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확실한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그 경계가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작업에도 그게 반영이 되잖아요.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계를 이렇게 설정하지만 그 경계면은 상당히 연약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언제나 이 충격에 부서지기 쉬운 아주 소심한 경계를 또 치세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넘을 사람들은 조심해야지만 수용이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오랜 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 작업에서 잘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설치는 안 했지만 시 같은 텍스트를 써 주셨거든요. 관객분들은 저희 갤러리의 홈페이지나 또는 여기 오셨을 때 플로어플랜에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구 중에 '앞만 보고 달렸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이의 입시하고 연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7년 정도 새로운 것을 더 만들어내지 않았던 것은 아이한테 온전히 집중한 시절이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주세요.

김시연 : 이번 <비스듬히> 전시를 가장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생활이 맞아요. 아이의 입시에 몰두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아이와 함께 입시에 전력 질주를 하면서 가치관의 혼란이 크게 왔던 시기이기도 해요. 제가 기존에 했던 작업들이 이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를 항상 제안하는 작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지점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교육이라는 것 자체, 어떤 한 인간이 성장하는 시스템에 있는 것 자체에서 안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떤 평등함과 공정함이라고 말하는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실제적으로 제 아이와 체험하면서 그런 지점은, 어쩌면 제가 항상 고민하고 제안하던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까 봐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이 항상 작업에 반영이 되었는데 작업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지점 자체가 아예 없을 수 있다는 것이 혼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스듬히>라는 작업에 느꼈던 감정은 이렇게 혼란과 안도와 불안처럼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감정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체험이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전력 질주하는 열차 위에 사람들이 막 달려요. 열차가 전력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달리고 근데 그 열차는 열 칸짜리 열차예요. 근데 저는 한 다섯 칸 쯤에 있고, 앞부분으로 갈 수 있는 데에서 달리면서 뒤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 가치라고 도달할 수 있는 그 앞부분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중간 지점이고 노력하면 갈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열차는 뒤쪽으로 갈수록 벽면이 없어요. 그러니 달리다가 튕겨 나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열차도 전력 질주하고 있고 사람들도 전력 질주하고 있으니까 서로 밀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맨 앞칸까지 가면, 그곳은 안전하고 벽이 다 둘러쳐 있을 것이라 믿고 달렸지만, 막상 맨 앞 지점에 도착했는데 거기엔 벽이 없어요. 그곳엔 있을 것이라고 믿고있었던 가치는 부재한 것이죠. 결국엔 어느 순간에는 모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다 같이 달리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 이게 뭘까 내가 과연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삶을 살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던 시기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라는 게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뭘 생산하고 창작을 하고, 무용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의 가치에 대한 것도 혼란이 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생산을 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속에서 깨달았죠. 세상 사람들이 너의 사회적 위치는 여기이고, 네가 해야 되는 사회적인 역할은 이것이니깐, 너는 가족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당연한 너의 의무이고 주어진 책무를 다했을 때 사람들이 김시연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그런 지점에 서서,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다 튕겨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뭘 까라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작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작업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싶고, 누구나 살 수 있는 몇 백 원짜리 지우개를 가지고 시간과 노력과 많은 생각과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결과물로서 어떤 조그만 의미 있는 예술 작품으로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같이 달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회복의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스스로도 좀 회복하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인선 : 제가 이전에 갤러리에 설치하는 기간이 일주일 걸렸다고 했지만 사실 저 지우개 실을 만드는 과정은 1년 남짓 걸리셨다고 하셨어요.

김시연 : 줄을 만드는 과정은 한 1년 정도 됐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쌓여있는 것은 몇 년간 조금씩 조금씩 해왔던 것의 축적이기도 해요.

김인선 : 그래서 이 작업을 완성하는 전체 과정의 시간이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감정을 끌어올리고 그것을 또 극복하는 본인만의 명상이나 치유의 방식으로 이것을 해오고 이제 그 결과물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우리나라 입시에 전념을 하면서 그런 감정들이 막 나왔던 것은, 아마 이 짧게 정해져 있는 입시 기간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야만 하는.. 사실 아주 악조건이죠. 어쨌든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일생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몰아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3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그 3년을 거치기 위한

또 그 전 기간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존재하니 어쩔 수 없이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철학과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이상적인 단계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불안감과 압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내내 이 전시 작품 이미지들을 보면 고무줄이 막 쏟아져 나오거나 이 구성들이 다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작은 것들이 열을 지어서 서 있거나, 선을 긋고 거기에 구분이 돼 있거나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이 노란색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012년도 두산갤러리에서의 전시 제목이 <노르스름한>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르스름한'이라는 아예 노랑지도 않은 애매한 단어를 설정을 하셨었는데, 그런 색감을 여기에서 또 보여주고 계세요. 색에 대한 얘기도 들어봐야겠습니다.

김시연 : 색은 감정과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노란색을 제일 처음 썼던 작품은 유학할 때 라퐁젤 이야기에서 출발한 영상 작업의 소품으로 쓰였던 머리가 노란색이에요. 뉴욕이라는 공간에서의 제 정체성은 황인종이더라고요. 저를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노란색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쓴 노란색은 '노르스름한' 작품인데 레지던시 때 뉴욕에서 채집한 색깔이 예요. 그때의 색은 '기다림'의 색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공간에서 작업하는 설렘을 나타내기도 하고, 당시의 올해의 색이 노란색이었고요. 그리고 '노르스름한' 전시의 출발이 되는 이야기 속의 색이기도 해요. 또한, 뉴욕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스쿨버스 색깔이 노란색이었어요. 그 당시 저의 생활은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학교 시간까지 열심히 작업하며 귀가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게 저의 일과였거든요. 그곳에서 채집된 노란색이었어요. 그런데 색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노란색 톤이어서 그냥 노란색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전시의 노랑색 또한 저의 정체성이나 저의 생활환경을 말해주는 노란색이기도 해요. 심리학에서 노란색이 가지는 상징성인 회복, 출발, 시작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노란색이 금지나 정지를 나타내며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색이기도 하잖아요. 저에게 노란색은 양가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색으로 여겨져요. 제가 사용한 노란색이 조금씩 더 따뜻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회복하는 과정을 대변하는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 색을 노란색이라고 부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연노랑 계통의 색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저 색깔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연노랑이라고 불리는 색연필을 가져다가 종이에 색칠을 하고 그것을 처음 지우기 시작하면 연노랑의 색감이 있지만 그 연노랑의 색감조차도 지우개의 본연이 가지고 있는 연한 회색의 색감이 합쳐진, 채도가 낮아진 연노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연노랑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 같고, 점점 지워가면서 종이가 더 연한 노란색의 종이로 변화할수록 그 색감이 더 연하게 나오면서 나중에는 지우개 본연의 색까지 나타나게 돼서 어떤 부분은 희끗희끗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연노랑이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짙은 노랑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노란색들이 혼합되는 있는 상태가 돼요. 우리의 반복적인 일상도 똑같은 것 같지만 세세히 살펴보면 각기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변화하는 연노랑색으로 표현했어요. 갤러리 벽면을 노란색으로 칠한 것은 관람객이 전시를 감상하고 나갈 때 연노랑색의 잔상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해서 노란색으로 벽면을 칠했고, 액자의 테두리도 연노랑 색깔로 정했고요. 사진에 들어있는 사물들도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추들과 약 등의 노란 색들을 생활에서 수집해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인선 : 전시장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레몬이다 하며 감탄합니다. 색의 느낌이 밝고 상큼한가 봐요.

그런 색상이나 또는 저렇게 반복된 행위 또 무용하는 것들을 같이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태도로서의 노동 이런 것들 때문인지 볼프강 라이프(Wolfgang Laib)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김시연 : 볼프강 라이프 작업과 다른 점은 일단 재료적인 면에서 그는 자연에서 채집한 재료를 사용해요.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절마다 다른 꽃가루들을 채집하시고 바닥에 까시는 작업인데, 방법적인 면에서 바닥에 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볼프강 라이프의 작업은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 같은 것이어서, 계절마다 오랜 시간 동안 꽃가루를 채집하고 투명한 병 용기에 옮기고 바닥에 깔고 다시 그 바닥에 깐 것을 회수하는 과정까지도 퍼포먼스이고, 볼프강 라이프의 작업은 자연, 생명에 대한 숭고함, 소중함을 동시에 종교적이면서 영적인 측면의 숭고미에 가깝다면 저의 작업은 조금 반대적인 부분이 있는 같아요. 저의 노랑 지우개 가루 설치 작업이 볼프강 라이프 작업과 연상이 되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제 작업에 사용한 지우개는 그냥 공산품인 거예요. 공산품인 지우개를 선택한 이유는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어느 집에서나 굴러 다닐 법한 그런 지우개가 소소한 생활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우개로 제작한 작업 과정을 설명할 때 노동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일종의 하찮은 지우개가 작품으로 창작되는 생산 과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상과 가까울 수 있는, 평범한 것과 가까울 수 있는, 소소한 생활에 가까울 수 있는 재료로서 선택했어요. 노동의 시간과 노력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지우개 가루가 쌓여진 형태로 설치했어요. 별것 아닌 사소한 사물이 어떤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공산품의 지우개가 예술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서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저의 작품이 아름다운 것은 작은 것이 아름다워서 아름답지 않았을까, 되게 하찮은 것이 아름다워서 아름답지 않았을까라는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선 : 마지막 질문인데요. 영향받은 책이 있으신가요?

김시연 : 저는 주로 시집을 많이 읽는데요. <비스듬히>라는 제목도 시집에서 선택한 제목이고요. 한권 말씀드리면 프랑시스 풍주(Francis Ponge)의 「사물의 편」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작업들이 일종의 소금, 비누 그리고 지우개 이런 것들이 사물인 거잖아요. 생활 사물을 관찰하며 접근하는 법을 이 시집을 통해 배웠어요. 그가 시를 쓸 때 물 한 잔을 창가에 두고 한 달 동안 살펴보면서 시를 써요. 그리고 은유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직설적이고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서술화된 시를 쓰시는 분이거든요. 오랜 시간 주변을 관찰하며 사유하는 작업하는 방법이나 사물과 교감하는 방법에 대해 가장 영향을 받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인선 : 지금 이 시집을 가지고 오셔서 금방 언급한 물에 대한 시를 찾아봤는데요. 시 중간에 산문 같은 시도 있고 그러네요. '중간에 휘고 반짝이는 형태가 일정치 않고 새로운 단 하나의 악덕 오직 중력에만 물은 수동적이고 끈덕지다. 그리고 이 악덕을 만족시키고자 물은 온갖 예외적 수단을 동원한다. 에두른다 꿇두른다 깎아낸다 걸러낸다..' 이런 식이네요. 이 책의 시들은 사물이 제목들이예요. 자연물의 제목도 있고. 사물, 자연물을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그것이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의미들을 덧붙이면서 서술을 하는 시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여주시는 김시연 작가의 반복적이고 노동에 의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과 많이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위치한 만들어진 것들이나 결과물들 중에 반복이 아닌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은 어떤 과정이든 반복을 거쳐야 우리 눈앞에 물리적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의미 있는 반복과 노동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더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들 감사했습니다.

김시연 : 감사합니다.